0428

*바이올린으로 소개하지만 그냥 현악기 주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~

-현악기이자 코르도폰(고정된 두 지점 사이에 연결된 현들을 연주하는 악기)의 일종인 바이올린은 현악기 파트에서

소프라노 악기 역할을 담당

바이올린을 활용한 현대주법

1) 피치카토 : ㅋ.ㅋ

ㄴ 스냅 피치카토 / - 16분음표 등의 짧은 음가가 제일 현실성 있게 다가갈 것이다..

ㄴ 손톱 피치카토 /

ㄴ 왼손 피치카토

ㄴ 하모닉스 피치카토, 브릿지 뒤 피치카토, 피치카토 후 글리산도 / - 음정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개방현을 X표시로만 표기함

ㄴ 분산화음적 피치카토 (기타 피크 등을 이용한) : 브릿지 뒤에서도 가능 / - 피치카토 후 남은 잔향으로 피치카토~

ㄴ 시간을 좀 줘야하고 끝 음정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연주자가 알아서 할 것임

2) 하모닉스 : 현 위의 한 점에 손을 가볍게 대어 인공적으로 진동의 마디를 얻어 배음을 얻는 주법

장 6도 = 장 3도 / 단 6도 = 단 3도

d - f# & d - b 의 하모닉스 트릴 vs d - f# 하모닉스 트레몰로는 같은 소리가 나지만 효과가 다름

ㄴ 전자가 훨씬 더 연타를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게 된다

* Half Harmonics : 기존 하모닉스보다 누르는 힘을 반만 줄 것 (정상적인 하모닉스보다 정확한 음

고가 떨어짐)

ㄴ 반 다이아몬드로 표기를 해줌

* MSP랑 on the bridge 는 소리가 크게 차이가 남

3) Saltando / Jete / Ricochet (프) : 리듬 X / 횟수 통제 X 그냥 효과로써 존재하는 소리~

ㄴ ricochet : 리듬을 어느 정도 부여함

ㄴ 큰 차이점이나 기준점은 없지만 대다수의 작곡가들은 Saltando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

*하지만 작곡가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읎다

*다이나믹이 cresc로 올라가는 방식은 불가능, 점점 작아자져야 함

4) 활의 압력 (overpressure) : 활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실어 현을 짓누름

ㄴ 표기법은 ppt에 나와있는 '그 문양'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하는 지도 표기해야

ㄴ 완전히 음정을 없애버리고 싶다면 O+ 합친 표기 표시

5) 글리산도 :

* Arpeggio while doing a glissando : 굉장히 효과적

6) 트릴 : 어떤 음으로 트릴을 해야 할지 표시를 해줘야 함

**

behind the bridge + over pressure : 굉장히 시끄러운 나무긁는 소리만 날 것-ㅓ허허허허허허허허헣ㅎ

on the bridge + col legno batt : 나무와 나무가 부딪치는 소리이기 때문에 효과적일 것

0512

1) Pizzcato

- 피치카토와 바르톡 피치카토는 존재합니다.

- 왼손 피치카토 같은 경우는 빠른 하행선을 달릴 때 굉장히 사용하기 좋음. 시간이 많이 없을 때 사용.

평상시의 경우에는 개방현을 사용할 때 괜찮을 듯?

ㄴ 브릿지 뒤 피치카토의 경우는 굉장히 높은 음고의 소리가 남

ㄴ 4현 피치카토는 그냥 존재

ㄴ 묵음 피치카토는 pizz + (O + +) '그 표기'

- 여러 음을 피치카토 할 때 음정을 아래로 내릴 때는 위로 갔다가 빠르게 내려올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.

ㄴ 그냥 내려올 때는 소리가 워낙 구리(..)고 연주자 분들도 혼란스러워 하실 듯?

2) Harmonics

- 도약이 굉장히 심하면 잘 안먹힐 가능성 농후

- 하모닉스 글리산도 - 'Flag Gliss'

- 하모닉스 + 글리산도 + 트레몰로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커질 경우 소리가 상당히 둔탁해진다.

ㄴ 정확한 음고를 원할 경우에는 최대 MF 정도로만 좋을 듯?

- Half-Harmonics : 특정 음정을 지정한 후에 그 pitch감이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원치 않을 때 주로 사용

ㄴ 약간 소름끼치는 미세하고 가느다란 소리가 남

ㄴ MSP의 경우 효과가 더 커짐 (거의 세트로 가져가면 좋을 듯?)

3) Saltando / Jete / Ricochet : 연주자들 입장에서 3개의 표기 모두 거의 같은 주법으로써 생각함

- Saltando는 활을 쭉 내려 쓸어가는 그 연주 자체로써 생각이 들고 (박자 컨트롤이 잘 안됨)

- ric. 과 점 2개를 같이 사용하면 리듬적인 느낌으로 사용한다 (박자 컨트롤이 상대적으로 됨)

- 하지만 사용을 하고 싶으면 한 곡에서 한 번만 사용해야 연주자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음

- 시벨리우스에 있나?

4) Overpressure

- 음정을 원할 정도인지 아닌지 여부를 위해서 그 강도를 표기해주는 것이 좋음

- 보잉 속도에 따라서 덜걱거리는 느낌이 부가됨

- Behind the Bridge에서 하면 일반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먹먹한 소리가 강조됨

5) 여러 위치에서 활 켜기

- behind the bridge : 현을 arco, pizz, c.l.b 등을 사용

- on the bridge : 나무 문지르는 소리..

- on the body : tv에서 채널 다 끝나고 나오는 백색소음 (소리가 매우 작음)

- lateral bowing : 개방현을 문지르는 방식인데 소리가 중간중간에 개방현 소리가 나옴

ㄴ 주로 clef 자리에 바이올린 그림을 그려 넣어서 훨씬 보기 편하게 끔 만들어놓음

ㄴ sul ponti를 밑에 표기방식을 하고 sul tasto를 위에 표기방식을 하는 게 연주자 입장에서 매우 편함

- 활을 시계,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연주하기 : 톱니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남

- Tapping : 손으로 tapping 하는 것. 여러 손가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며, 저음일수록 소리가 더 잘 난다.

6) 기타

- legno + crini : (반 나무, 반 털)의 경우에는 솔로일 때는 들릴지도 모르지만, 앙상블을 할 때는 안.들.린.다.

-